

부산지역 어촌 · 어항 개발에 관한 지역시민의식 조사

김영표¹ · 윤한삼^{2*} · 김헌태³ · 류청로³

¹부산광역시 수산행정과

²부경대학교 해양산업개발연구소

³부경대학교 해양공학과

Survey of Responses Regarding the Development of Fishing Village and Port in the Busan Region

Yeong-Pyo Kim¹, Han-Sam Yoon^{2*}, Heon-Tae Kim³ and Cheong-Ro Ryu³

¹Fisheries Administration Div., Busan Metropolitan City, Yeonsan 5-Dong, Yeonje-Gu, Busan 611-735, Korea

²Research Center for Ocean Industrial Development, Pukyong National Univ.,

Daeyeon 3-Dong, Nam-Gu, Busan 608-737, Korea

³Department of Ocean Engineering, Pukyong National Univ., Daeyeon 3-Dong, Nam-Gu, Busan 608-737, Korea

요 약

본 연구는 부산지역내에 어촌 및 어항을 방문하는 방문객과 어촌 및 어항개발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 내용은 어촌 및 어항개발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어촌 및 어항개발 시 고려/개선사항, 투자우선순위 어촌 및 어항 개발방향에 대한 것으로 초점을 두었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부산지역에서의 어촌 · 어항개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Abstract – This study evaluated the results of a questionnaire survey taken by visitors and residents likely to be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ed by a proposed fishing village and port development in the Busan region. The questionnaire focused on various potential effects that the development would have on the local community and on ways to improve the development process, as well as on the priorities of such investment and the direction the development should take. Our goal was to determine the sentiments of the local citizenry regarding the proposed fishing village and port development in the Busan region.

Keywords: Busan Region(부산지역), Fishing Village and Port(어촌 · 어항), Questionnaire Survey(설문조사), Development Direction(개발방향)

1. 서 론

최근 친수공간을 이용한 지역개발 및 관광어항 개발에 따른 어촌 · 어항지역의 관광지화 등의 경향이 새로운 어촌 · 어항지역개발의 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김성귀, 2005). 특히 환경친화적 다기능 종합어항개발을 통해 도시민에게 해양관광 · 레저 · 문화 및 복지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어촌 · 어항개발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해양수산부, 2001).

이는 수산물 생산량 및 어가소득 감소로 인한 어업의 소득원으로서의 관광소득 증대, 도로망 정비에 따른 관광객의 접근성 용이,

주말 관광객의 증가추세, 연안관광지 선호현상 등으로 관광어촌의 성립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이승우 등, 2001).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어촌 · 어항 관광지화 개발의 양상을 살펴보면 어민의 생산/생활공간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는 부진한 가운데 외부자본에 의한 비생산성/소비성 투자에 국한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어촌주민의 욕구 미반영, 지역여건을 무시한 과도한 개발은 지역의 정체성과 정주환경을 훼손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김재구, 2003).

이러한 측면에서 어촌 · 어항개발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는 대부분 정책적 측면에서의 개발방향 제시에 그치고 있으며(허재완, 2003; 김성귀 등, 2001), 지역주민의 참여 및 의견 수렴에 관한 연

*Corresponding author: yoonhans@pknu.ac.kr

구는 미미한 실정이다(김재구, 2003). 또한 지역주민과 어촌·어항을 방문하는 방문객(관광객)에 대한 어촌·어항개발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윤상호 등, 1998; 조광익 등, 2002). 이는 지역주민의 관광에 대한 태도를 고찰하는 관광태도 또는 관광지각적 접근법 연구(Allen *et al.*, 1993)에도 불구하고 관광의 영향에 대한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태도와 반응은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적이며(고동완, 2001), 개인적 요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Mason *et al.*, 2000).

따라서 본 연구는 부산지역 동부/중부/서부권 어촌·어항의 지역주민과 어항 방문객(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부산권역 어촌·어항의 관광자원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어촌·어항개발에 있어 관광자원이 차지하는 비중과 이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이용자들 간의 인식의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차후 도시형 어촌·어항개발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부산지역 어촌·어항 현황 및 이용실태

부산지역 어업인구는 2004년 현재 2,756가구 8,902명이며 1980년 11,000명에서 현재 19% 감소한 실정이다.

부산지역에는 총 51개의 어항이 있으며 이는 전국 어항의 2.1%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중 국가어항으로는 다대포와 대변(전국 대비 1.9%), 지방어항으로는 송정, 청사포를 비롯해 14개항(전국 대비 4.4%), 어촌정주어항은 어촌계별 항포구로서 총 35개항(전국 대비 1.7%)이 분포하고 있다(Fig. 1).

2.2 설문조사 방법 및 범위

설문조사는 부산시 전체 어촌·어항을 권역별로 구분하여 3개 권역, 14개 어항(동부권-칠암, 이동, 두호, 대변; 중부권-다대, 암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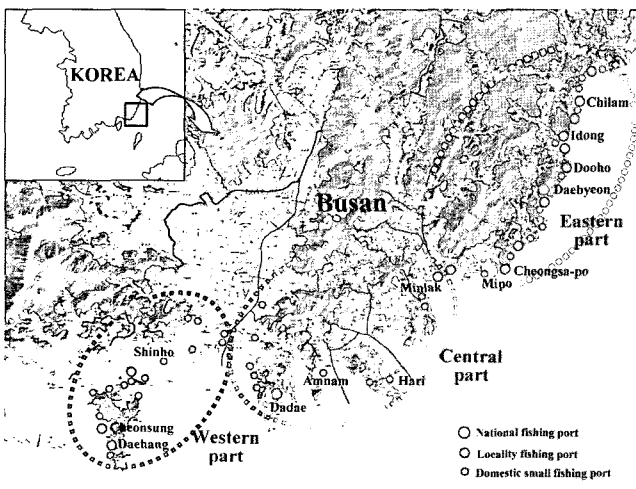


Fig. 1. Map showing the proposed sites of the fishing village and port in the Busan region.

Table 1. Distribution and collection sites of questionnaires

Division	Visitor		Residents	
	Station	Samples	Station	Samples
	14	363(83.6%)	14	335(85.5%)
Subtotal	4	108	4	102
Eastern part				
Chilam	1	25	1	26
Idong	1	28	1	20
Dooho	1	27	1	28
Daebyeon	1	28	1	28
Subtotal	7	183	7	162
Central part				
Dadea	1	30	1	28
Amnam	1	20	1	19
Hari	1	31	1	28
Minlak	1	28	1	24
Mipo	1	23	1	23
Cheongsa-po	1	25	1	23
Songjeong	1	26	1	17
Subtotal	3	70	3	70
Western part				
Cheonsung	1	25	1	16
Dachang	1	22	1	26
Shinho	1	23	1	28

하리, 민락, 미포, 청사포, 송정; 서부권-천성, 대항, 신호)의 방문객(관광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004년 11월(18일-30일)에 실시하였다. 설문방식은 무작위 표본추출방법으로 설문항목에 직접 응답하는 자기기입식(self-administration) 면접법이다.

설문조사에서 방문객의 경우 회수된 설문지 363부 중(총 434부 배부, 83.6% 회수율),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을 제외한 340부를, 지역주민의 경우 회수된 설문지 335부 중(총 392부 배부, 85.5% 회수율), 313부의 유효표본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Table 1).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방문객의 경우 여성보다는 남성의 비율이 64%로 상대적으로 높으며, 연령대는 40대가 41.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30대(28.8%), 20대(18.2%), 50대(16.2%)순이다. 지역주민의 경우도 남성의 비율이 83.2%로 상대적으로 여성보다 높고, 연령대는 50대가 36.7%로 가장 높으며, 40대(31.8%), 60대(15.4%)순이었다.

2.3 설문항목

설문문항은 어촌·어항개발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항(24개), 어촌·어항개발에 대한 인식수준 및 태도에 관한 문항(6개), 어촌·어항개발시 고려사항(12개), 개선사항(7개), 그리고 도입시설(1개)에 관한 문항, 어촌·어항 개발방향(1개), 어촌·어항개발로 인한 파급효과 문항(5개), 어촌·어항개발에 대한 전반적 견해(4개), 방문행태에 관한 문항(10개), 인구 통계적 특성에 관한 문항(6개) 등 총 7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아울러 지역주민 설문문항에서는 방문행태에 관한 문항이 제외되었으며, 어촌·어항개발에 대한 전반적 견해에 관한 문항(8개)이 추가되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징에서는 고향여부와 어촌계 가입여부(가입동기, 가입기간)를 묻는 문항이 추가되어 총 7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상술한 설문문항 중에서 ① 어촌·어항개발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② 어촌·어항개발 시 고려/개선사항, ③ 투자우선순위 ④ 어촌·어항 개발방향 문항의 4개 영역에 대해서만 기술하고자 한다.

3. 결 과

3.1 어촌·어항개발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어촌·어항개발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영향으로 분류한 뒤 각각에 대해서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으로 세분화하여 영향 정도를 분석하였다.

3.1.1 경제적 영향

어촌·어항개발로 인한 긍정적인 경제적 영향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응답한 경우(76.9%)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지역주민의 소득향상(73.1%), 지역사회의 조세수입 증대(41.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주민의 경우 고용창출과 같은 직접적인 혜택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반면에 방문객의 경우 어촌·어항개발을 통한 소득향상과 조세수입 증대에 대한 기대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에 대해 인근 토지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증가(46.5%)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물가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증가(45.0%), 개발로 인한 과소비 성향 유발(35.5%)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주민의 경우 물가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증가에 무게를 둔 반면, 방문객의 경우 재산세 증가와 과소비 성향 유발에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2 사회·문화적 영향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해 방문객과 지역주민들이 대체로 긍정적인 응답을 나타내었는데, 상대적으로 지역주민이 방문객보다 긍정적 영향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어촌·어항개발로 사회기반 시설 및 공공서비스의 개선을 통해 전반적인 생활의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는 지역주민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 분석할 수 있다.

긍정적 영향 중 지역주민 생활의 수준 향상(67.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개발로 인해 경찰·소방 활동, 쓰레기 처리 등 공공서비스 개선(59.1%),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활동 증진(46.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 영향으로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 증가(50.2%), 범죄발생 증가(38.4%) 등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그 외 미풍양속 저해, 지역의 고유문화 파괴, 도박 등 한탕주의 성행 등은 비교적 낮았다.

이상의 결과는 어촌·어항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기대심리가 반영되어 부정적 영향인식보다 긍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지역주민의 기대를 충분히 반영하여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은 최소화하고 긍정적 인 영향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어촌·어항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able 2. Responses to the question regarding positive economic effects

Division	Yes	Normal	Not at all	
Economy expanding	Visitor	250(73.5)	82(24.1)	8(2.4)
	Local	251(80.5)	53(17.0)	8(2.6)
	Total	501(76.9)	135(20.7)	16(2.5)
Employment creation	Visitor	192(56.4)	133(39.1)	15(4.4)
	Local	199(64.7)	93(29.8)	17(5.5)
	Total	394(60.4)	226(34.7)	32(4.9)
Income rise	Visitor	263(77.4)	68(20.0)	9(2.6)
	Local	212(68.3)	87(28.1)	11(3.6)
	Total	475(73.1)	155(23.8)	20(3.1)
Internal revenue	Visitor	155(45.6)	162(47.6)	23(6.8)
	Local	118(37.8)	162(51.9)	32(10.3)
	Total	273(41.8)	324(49.7)	52(8.4)

Table 3. Responses to the question regarding negative economic effects

Division	Yes	Normal	Not at all	
Property tax Increase	Visitor	170(50.0)	116(34.1)	54(15.9)
	Local	134(42.8)	122(39.0)	57(18.2)
	Total	304(46.5)	238(36.4)	111(17.0)
Living expenses Increase	Visitor	148(43.5)	128(37.6)	64(18.9)
	Local	145(46.6)	96(30.9)	70(22.5)
	Total	293(45.0)	224(34.4)	134(20.6)
Overconsumption production	Visitor	138(40.6)	104(30.6)	98(28.8)
	Local	93(29.8)	136(43.6)	83(26.6)
	Total	231(35.5)	240(36.8)	181(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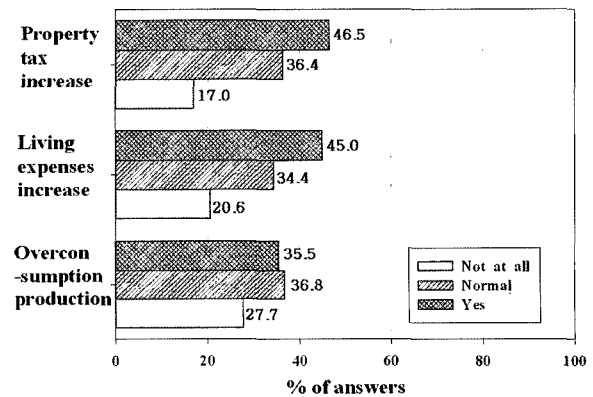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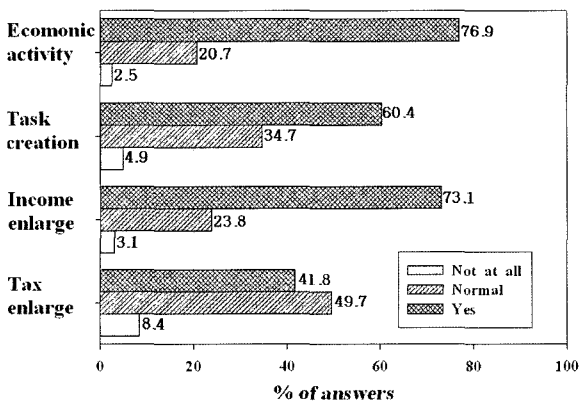


Table 4. Responses to the question regarding positive social effects

Division		Yes	Normal	Not at all
Livelihood rise	Visitor	218(64.1)	110(32.4)	12(3.5)
	Local	220(70.9)	82(26.5)	8(2.6)
	Total	438(67.4)	192(29.5)	20(3.1)
Public Service improvement	Visitor	187(55.0)	125(36.8)	28(8.2)
	Local	197(63.6)	95(30.6)	18(5.8)
	Total	384(59.1)	220(33.8)	46(7.0)
Various cultural activity	Visitor	143(42.2)	158(46.6)	38(11.2)
	Local	160(51.1)	136(43.5)	17(5.5)
	Total	303(46.5)	294(45.1)	55(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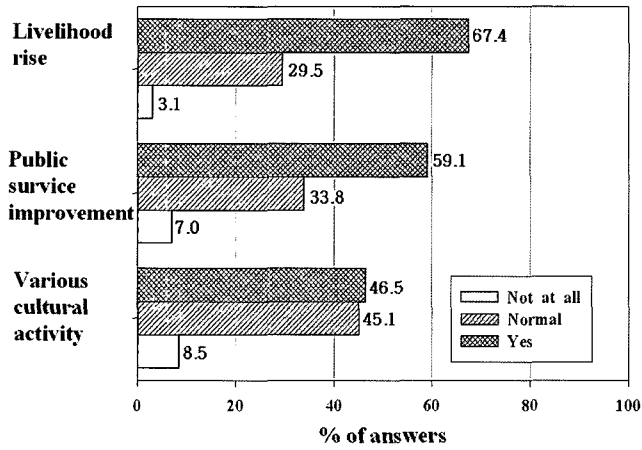


Table 6. Responses to the question regarding positive environmental effects

Division		Yes	Normal	Not at all
Scenery improvement	Visitor	219(64.4)	106(31.2)	15(4.4)
	Local	207(66.3)	86(27.6)	19(6.1)
	Total	426(65.3)	192(29.4)	34(5.2)
Facilities increase	Visitor	209(61.5)	113(33.2)	18(5.3)
	Local	188(60.3)	94(30.1)	30(9.6)
	Total	397(60.9)	207(31.7)	48(7.4)
Maintenance increase	Visitor	232(68.4)	97(28.6)	10(3.0)
	Local	216(69.2)	70(22.4)	26(8.4)
	Total	448(68.8)	167(25.7)	36(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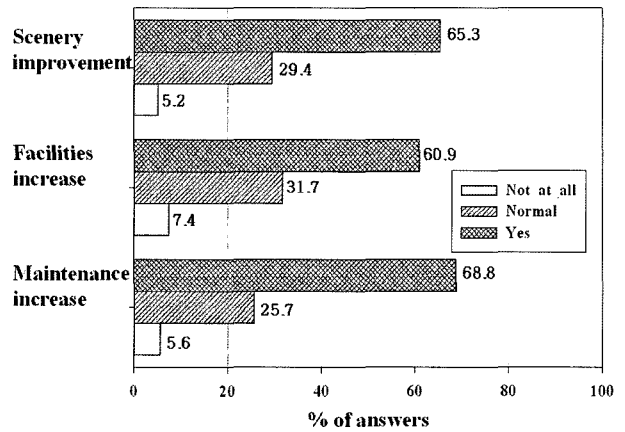


Table 5. Responses to the question regarding negative social effects

Division		Yes	Normal	Not at all
Traffic problem	Visitor	184(54.1)	88(25.9)	68(20.0)
	Local	143(46.0)	96(30.9)	72(23.2)
	Total	327(50.2)	184(28.3)	140(21.5)
Crime production	Visitor	129(37.9)	111(32.6)	100(29.4)
	Local	121(39.0)	84(27.1)	105(33.9)
	Total	250(38.4)	195(30.0)	205(31.5)
Proper culture destruction	Visitor	106(31.2)	128(37.6)	106(31.2)
	Local	75(24.1)	115(37.0)	121(38.9)
	Total	181(27.8)	243(37.3)	227(3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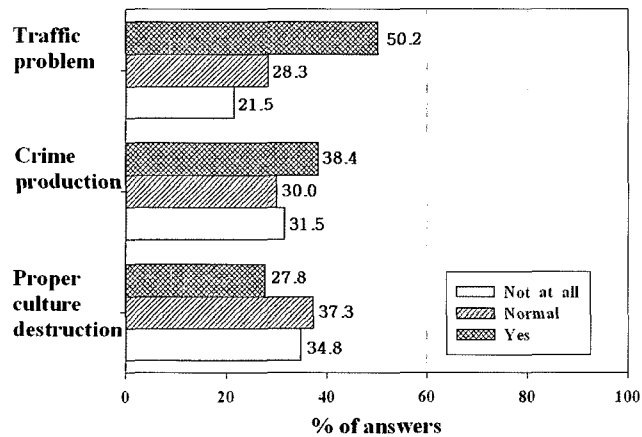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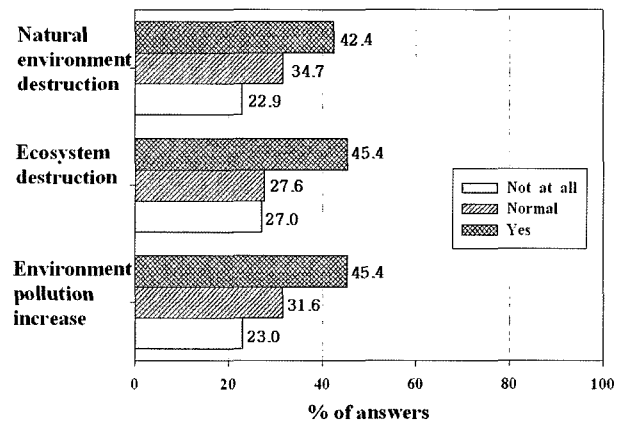


Table 7. Responses to the question regarding negative environmental effects

Division		Yes	Normal	Not at all
Nature environment destruction	Visitor	153(45.0)	125(36.8)	62(18.3)
	Local	123(39.6)	101(32.5)	87(28.0)
	Total	276(42.4)	226(34.7)	149(22.9)
Ecosystem destruction	Visitor	172(50.6)	99(29.1)	69(20.3)
	Local	124(39.8)	81(26.0)	107(34.3)
	Total	296(45.4)	180(27.6)	176(27.0)
Environment pollution increase	Visitor	166(48.8)	110(32.4)	64(18.8)
	Local	130(41.6)	96(30.8)	86(27.6)
	Total	296(45.4)	206(31.6)	150(23.0)



3.1.3 환경적 영향

어촌·어항개발에 따른 긍정적인 환경적 영향인식에 대한 문항에 대해 도로 등 공공시설의 정비 증가(68.8%), 지역의 외관 향상(65.3%)으로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었다. 그 외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생활기반시설 증가가 예상된다는 응답에서는 방문객의 기대가 지역주민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부정적인 환경적 영향인식에 대해 방문객과 지역주민 모두 그럴 것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주민의 경우 부정적인 영향 인식이 방문객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지역주민들에게 있어 어촌·어항개발로 인한 환경적 개선과 도로 등 공공시설에 대한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긍정적인 영향으로 반영된 결과라 판단된다.

3.2 어촌·어항개발시 고려개선사항

지역주민과 방문객 모두 고려사항에 대해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중요성이 높게 나타난 항목은 주변환경성 항목으로 75.9%이며, 다음으로 서비스 친절성(74.9%), 시설다양성(74.5%), 경제적 타당성(73.9%)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가장 중요성을 낮게 응답한 항목은 기후(계절성)항목으로 52.6%가 응답하였다.

또한 서비스 친절성, 주변환경성(관광자원성), 이미지(명성), 자연환경보존성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는 어촌지역주민이 방문객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수혜, 기후(계절성)에 대해 어촌주민이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어촌·어항개발시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한 문항에 대해 방문객과 지역주민 모두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가 79%로 높은 응답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사회기반시설의 적극 지원(75.5%), 개발정책의 현실성과 일관성(71.8%)이 필요하다는 응답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항목 중 각종 세금감면, 환경영향평가제도 감시기구의 단일화, 개발정책의 현실성과 일관성 항목에서는 방문객이 지역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필요성을 더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상과는 달리 직접적인 각종 세금감면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서는 지역주민보다 방문객이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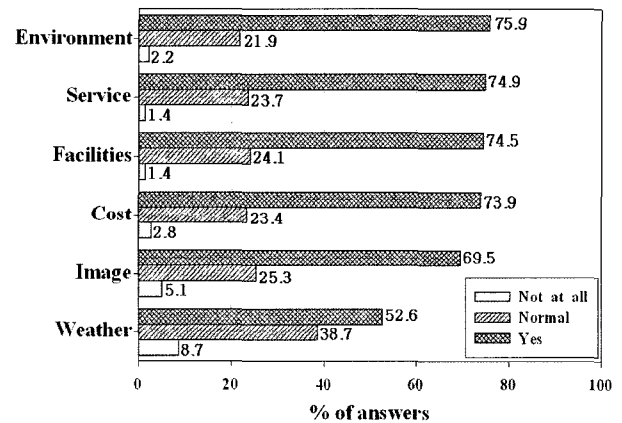
3.3 어촌·어항개발시 투자우선순위

향후 어촌·어항개발 시 도입시설에 대한 방문객과 지역주민의 의식조사를 살펴보았다. 설문문항은 기능, 문화·복지, 관광·레저의 3개 영역, 16개 시설에 대해 방문객과 지역주민에게 투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순위별로 가중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방문객과 지역주민간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

Table 8. Investment ranking of potential fishing port developers

Division		Yes	Normal	Not at all
Environment	Visitor	268(78.8)	69(20.3)	3(0.9)
	Local	227(72.7)	74(23.7)	11(3.5)
	Total	495(75.9)	143(21.9)	14(2.2)
Service	Visitor	261(76.8)	76(22.4)	3(0.9)
	Local	226(73.9)	78(25.2)	6(1.9)
	Total	487(74.9)	154(23.7)	9(1.4)
Facility	Visitor	253(74.4)	85(25.0)	2(0.6)
	Local	233(75.7)	72(23.1)	7(2.2)
	Total	486(74.5)	157(24.1)	9(1.4)
Cost	Visitor	245(72.1)	90(26.5)	5(1.5)
	Local	235(75.8)	62(20.0)	13(4.2)
	Total	480(73.9)	152(23.4)	18(2.8)
Image	Visitor	248(72.9)	71(20.9)	21(6.2)
	Local	202(65.8)	93(30.3)	12(3.9)
	Total	450(69.5)	164(25.3)	33(5.1)
Weather	Visitor	171(50.3)	134(39.4)	35(10.3)
	Local	170(55.2)	117(38.0)	21(6.8)
	Total	341(52.6)	251(38.7)	56(8.7)



되었다. 우선 방문객의 경우 방파제, 제방 등 외곽시설이 1순위(289점)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수산물 유통·판매시설(248점), 물양장, 선착장 등 계류시설(208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중치 총점을 순위별 총점으로 나는 평점을 기준으로 보면 방파제, 제방 등 외곽시설(2.54), 물양장, 선착장 등 계류시설(2.42), 어항정화시설(2.20)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의 경우 가중치 총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물양장, 선착장 등 계류시설이 40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이 수산물 유통·판매시설(391점), 방파제, 제방 등 외곽시설(300점) 순으로 분석되었다. 평점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방파제, 제방 등 외곽시설이 2.5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물양장, 선착장 등 계류시설(2.34)과 수산물 유통·판매시설(2.30)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향후 어촌·어항개발시 도입시설의 투자 우선순위에 있어 방파제 및 제방 등 외곽시설, 수산물 유통·판매시설 등 대부분 직접적인 기능시설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9. Proposed development models of the fishing village and port in the Busan region

Function	Impossible facilities	Visitor				Residents					
		1st	2nd	3th	sub-total	Grade	1st	2nd	3th	sub-total	Grade
Function	Structure(breakwater)	79	17	18	289	2.54	77	27	15	300	2.52
	Mooring system	44	34	8	208	2.42	74	85	15	407	2.34
	Safe equipment of ship	6	15	19	67	1.68	13	16	62	133	1.46
	Circulation of marine products	49	36	29	248	2.18	73	75	22	391	2.30
	Manufacturing of marine products	9	17	15	76	1.85	13	16	43	114	1.58
	Purification of fishing port	31	16	18	143	2.20	6	17	14	66	1.78
Culture/welfare	Public welfare hall	11	27	19	106	1.86	5	17	30	79	1.52
	Physical training equipment	4	11	16	50	1.61	4	7	8	34	1.79
	Cultural institutions	12	26	10	98	2.04	15	10	6	71	2.29
	Open space institutions	8	24	12	84	1.91		4	5	13	1.44
Leisure	Ocean leisure relating institutions	32	22	43	183	1.89	5	12	25	64	1.52
	Memento store	2	34	17	91	1.72	6	2	18	40	1.54
	Restaurant	3	12	28	61	1.42	1	4	5	16	1.60
	lodging facilities	2	2	7	17	1.55	0	3	4	10	1.43
	convenient facilities(toilet, parking)	34	33	43	211	1.92	9	8	22	65	1.67
	Information facilities	12	12	35	95	1.61	6	3	12	36	1.71
	Not answer	2	2	3	13	1.86	6	7	7	39	1.95

※ weight value: 1st(3point), 2nd(2point), 3th(1point)

※Grade = subtotal/sum of weight val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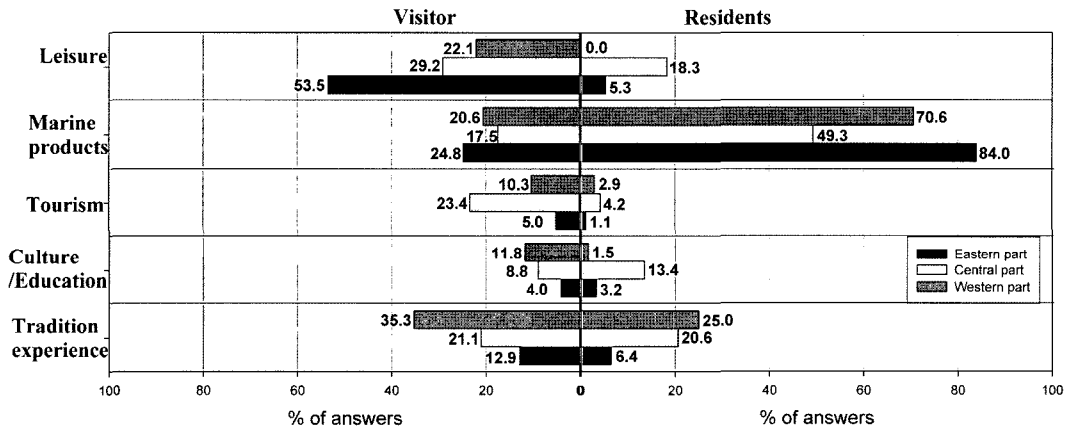


Fig. 2. Responses to the question regarding the development model.

3.4 어촌 · 어항 개발방향

향후 어촌·어항개발시 바람직한 개발모델에 대한 문항에는 지역주민과 방문객의 인식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방문객의 경우에는 휴양·레저형 개발(35.0%), 다음으로 어촌전통문화 체험형 개발(21.2%), 수산물 판매형(20.6%) 순이었다. 반면, 지역주민의 경우 수산물 판매형(64.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어촌전통문화 체험형(14.5%), 휴양·레저형 개발(10.2%)순이었다.

이는 지역주민의 경우 수산물 판매를 통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기대가 높은 반면, 방문객의 경우 휴양·레저형 개발을 통한 레저공간 및 기회 확대에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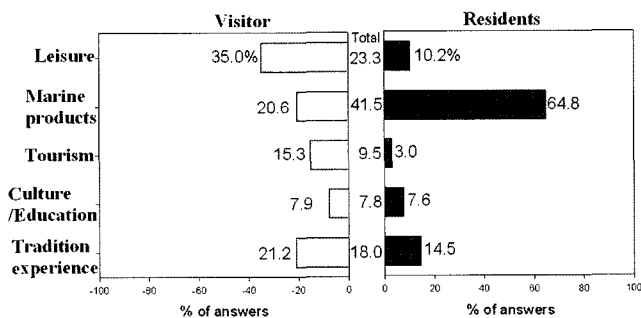
세부적으로 부산지역 동부권 방문객의 경우 휴양·레저형 개발(53.5%), 다음으로 수산물 판매형 개발(24.8%), 어촌전통문화체

험형(12.9%)로 나타났다. 중부권의 경우에는 수산물 판매형(29.2%), 다음으로 자연경관유람형(23.4%), 어촌전통문화 체험형(21.2%)으로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다. 서부권의 경우에는 어촌전통문화 체험형 개발(35.3%), 다음으로 휴양레저형(22.1%), 수산물판매형(20.6%) 순으로 나타나 권역별로 어항의 기능 및 특성에 따라 개발모델에 대한 수요가 차이 남을 알 수 있었다(Table 10).

지역주민의 경우에는 3개 권역 모두 수산물 판매형 개발모델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동부권(84.0%), 서부권(70.6%), 중부권(49.3%)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수산물 판매형 중심의 개발을 통한 어촌·어항개발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어촌·어항의 개발시 이러한 집단간의 인식 차이를 조화할 수 있는 개발모델의 제시가 요구되어진다.

Table 10. Development models by this survey in fishing port of Busan

Division	Leisure	Marine Products	Tourism	Culture/education	Tradition experience	Total
Visitor	119(35.0)	70(20.6)	52(15.3)	27(7.9)	72(21.2)	340
Eastern	54(53.5)	25(24.8)	5(5.0)	4(4.0)	13(12.9)	101
Central	50(29.2)	30(17.5)	40(23.4)	15(8.8)	36(21.1)	171
Western	15(22.1)	14(20.6)	7(10.3)	8(11.8)	24(35.3)	68
Residents	31(10.2)	197(64.8)	9(3.0)	23(7.6)	44(14.5)	304
Eastern	5(5.3)	79(84.0)	1(1.1)	3(3.2)	6(6.4)	94
Central	26(18.3)	70(49.3)	6(4.2)	19(13.4)	21(20.6)	142
Western	0(0.0)	48(70.6)	2(2.9)	1(1.5)	17(25.0)	68
Total	150(23.3)	267(41.5)	61(9.5)	50(7.8)	116(18.0)	644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부산지역내 어촌·어항을 방문하는 방문객과 어촌·어항개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① 어촌·어항개발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② 어촌·어항개발시 고려/개선사항, ③ 투자우선순위 ④ 어촌·어항 개발방향 문항의 4개 영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부산지역 어촌·어항개발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부산지역 어촌·어항개발에 대한 방문객과 지역주민의 인식정도와 집단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어촌·어항개발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두 집단 모두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영향인식에 있어서 긍정적·부정적 영향 인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영향인식에 있어서는 방문객과 지역주민 모두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과소비 성향의 유발을 부정적 영향으로, 또한 사회문화적 영향인식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의 생활의 수준 향상이라는 긍정성에 비해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 증가를 부정적 영향으로 응답하였다. 환경적 영향인식에 있어서는 어촌·어항개발로 인한 공공시설의 정비 증가가 예상된다는 긍정적 영향에 대비해 부정적인 영향으로 지역생태계 파괴를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어촌·어항개발시 고려사항에 대해 방문객의 경우 주변 환경성을 고려해야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지역주민의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수혜를 가장 고려해야한다고 응답하여 집단간 시각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어촌·어항개발시 개선사항에 대해 방문객의 경우 개발 정책의 현실성과 일관성을; 지역주민의 경우에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응답하였다.

넷째, 어촌·어항의 개발모델 문항에 대해 방문객과 지역주민 간 다소 차이를 나타내었다. 개발모델에 있어 방문객의 경우 휴양·레저형 개발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가장 높은 반면, 지역주민의 경우 수산물 판매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주민의 경우에는 수산물 판매를 통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방문객의 경우에는 휴양·레저형 개발을 통한 레저공간 및 기회 확대에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1] 김재구, 2003, “주민참여형 어촌관광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김성귀, 2005, 어촌어항 관광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제8회 한일어항기술교류회의 자료집, 한국어항협회, 39-58.
- [3] 김성귀·윤상호·황기형·이중훈·홍장원, 2001, “어촌관광 증장기 발전계획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4] 고동완, 2001, “인구통계적 특성과 상황적 특성에 따른 관광영향 인식의 차이”, 관광학연구, 25(3), 63-80.
- [5] 윤상호·김성귀·김종덕, 1998, “관광형 어촌정주권 투자효과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0(1).
- [6] 이승우·김성귀·이중훈·홍장원·박성우, 2001, “어촌체험 관광마를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7] 조광익·김남조, 2002, “관광의 영향이 지역주민의 태도와 관광개발에 미치는 구조 효과 분석”, 관광학연구, 26(2), 31-51.
- [8] 해양수산부, 2001, 전국어항개발 투자효과 분석 및 개발방안.
- [9] 허재완, 2003, “어항개발사업의 투자효과 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5(2).
- [10] Allen, L.R., H.R. Hafer, P.T. Long and R. Perdue, 1993, “Rural Residents’ Attitudes toward Recreation and Tourism Development”, J. of Travel Research, 31(4), 27-33.
- [11] Mason, P. and J. Cheyne, 2000, “Residents’ Attitudes to Proposed Tourism Development”, Annals of Tourism Research, 27(2), 391-411.

2005년 9월 7일 원고접수

2006년 2월 13일 수정본 채택